

목회의 프락



박광현 목사
광주예원교회 담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열망(熱望)이 생깁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인간의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금식과 같은 고행을 합니다. 금식을 하다보면 너무 배고프고 힘이 빠져서 귀가 울리는 이명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다하지 않아도 아내의 내 마음을 알았고, 나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서로 친밀해질수록 말로 주고받는 대화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느끼는 대화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나는 아내와 더 친밀할까? 아니면 성령님과 더 친밀할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더 친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내와 한 몸이라고 생각

해서 구태여 우리의 목소리처럼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느낌으로써 우리영혼의 고막을 울립니다. 요한복음 14:26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은 소수의 영적 엘리트들에게 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준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잔 다르크>에서 프랑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 음성, 그 음성이 왜 나에게 들리지 않는가?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러자 잔다르크가 대답합니다. "음성은 왕께도 옵니다. 다만 왕이 듣지 않는 것뿐입니다. 삼중기도 종이 울리면 왕께서 성호를 긋는 것으로 끝내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타종이 멈추고 저 공중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시면 왕께서도 소리처럼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듣기

합니다. 유명한 목사이자 영성학자인 '달리스 윌라드'는 "나는 일평생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우리에게 충격과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어느 날, 나는 아내와 깊은 영적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와 목소리만 대화하지 않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와 분리된 서로 다른 고유한 인격체이지만 성령님과 나는 하나의 심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관계도 심령이 완전히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한 심령 안에 있다면 구태여 서로 목소리로 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할 때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령의 소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생각'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반복 떠오르는 깨끗한 생각,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는 내 마음의 귀를 열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우리의 가장 큰 사명과 기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성칼럼



정형수 목사
아시아교회 담임
InterCP 사역 이사

중 속에서도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폭풍, 선장, 뱃사람들-모두 죄인인 요나, 골빈 비둘기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느 때나 어디서나 제한 없이 다 동원하실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매체이다.

3. 죄인, 발견되다! 도망은 추적되고 저지당하며, 죄인은 드러나고야 만다. 죄가 죄인을 찾아낸다. 죄인은 죄를 떠나 도망할 수

남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은밀한 범죄도 결국 발견되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범죄는 결코 없다.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화개기회를 놓친다면 반드시 이간이나 요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수치와 멸시로 그분의 징계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화개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때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 압도당하며 한 교회와 한 단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종종 역사 속에 등장한다. 영국의 웨일스 부흥, 미국의 무디를 통한 부흥, 한국의 1907년 부흥 등 모든 부흥들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흥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직하게 나타낼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가면을 벗어

죄인, 발견되다

그 범죄의 실상들이 확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는 후회와 자살로 자신의 범죄를 처리했고, 베드로는 회개하여 초기 기독교의 초석을 마련했다.

교회의 부흥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인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정도로 부흥을 이해하거나,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이 좋아졌다고 피상적인 이유에서 부흥의 의미를 찾으려하면 안 된다. 참된 부흥은 사람들의 영혼이 소생되며 이것이 공동체에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던져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셨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요나는 정직하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낸다. 그는 자신이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부분까지 정직하게 내어놓았다. 이러한 정직성을 베드로(눅5장), 아시아(사8장)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득익 교수 Q&A 시리즈 2. 11 하늘에 있는 천사가 타락할 수 있나?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 나라에 있는데 타락할 수 있나?

<지난 호에 이어> 그렇지만 그가 사용한 언어와 표현은 사탄의 기원과 관련된 패턴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열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은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뿔 밑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렁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이다"(사14:12-15).

"내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앉으리라"는 말은 천사로서 자신의 능력과 존엄을 넘어서는 반역을 뜻하는 거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죄는 그 신분과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시도하는 교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는 '하늘나라'를 모든 것이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완벽하지만 천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역시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효한 상태에서 완벽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환경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공이라고 하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죄의 환경은 무관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와의 협력을 거쳐 마련했다. (신득익 교수/기독교문서선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후원교회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including: 대한예수교장로회 만남의교회, 광주산수교회, 세움교회, 소망있는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둥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아시아침례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무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암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양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서남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은광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예은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백운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남부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향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성제일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